

여야 '탄핵안' 전운 ... 오늘 '본회의' 열시는 김진표 의장

민주 "내일까지 처리"...국힘 "예산안 진전 없이 소집 불가" 팽팽 김 의장 결정 주목...오전까지 양측 중재·협상 통한 합의 유도 방침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이를 연속 본회의를 열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 일간의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잡았기에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절대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결국 관건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해당 날짜에 본회의를 열어줄지에 달려 있어 김 의장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0일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본회의이지만,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굳이 본회의를 열자고 한다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이 12월 1일에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않는 한 30일 본회의 역시 '소집 불가'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김 의장을 압박해 12월 1일 본회의를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뒤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에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종석 현제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은 다음번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8일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건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의회 폭거 대응 비상 의원총회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원내 주요 현안으로 인해 의총이 수시 소집될 예정으로 전원 반드시 의총에 참석해 달라"며 '국회 대기령'을 내렸다.

반면 민주당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간에 합의된 일정이라는 입장이다.

즉 30일 탄핵안이 보고되면 24시간이 지난 12월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것이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전격적인 필리버스터 철회로 계획이 어긋나 자진 철회했던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안도 전날 재발의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의장이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열린다는 전제로 말했다"며 "안 열리는 상황은 가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일정이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달라. 본회의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김진표 의장께서는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내일 본회의와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를 보여선 결코 안 된다"며 "반대는 회의장 안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서 하면 된다. 본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일단 30일 오전까지 양측을 중재하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의장은 예산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만 단독 강행 처리할 경우 연발국회가 파국으로 향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간 본회의의 일정 합의를 위해 최대한 마지막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며 "꾸준히 여야 원내대표와 물밑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시선관위, 총선 입후보 설명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선관리위원회가 29일 광주 서구 5.18교육관 대회의실에서 각 예비후보자들과 사무관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재명 "청년내일 채용공제 증액·청년 월세 지원"

민주 "국민 삶 위해 예산 증액"...노란봉투법·방송3법 공포 재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하며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은 훨씬 더 심화했다"면서 "청년내일 채용공제 예산을 반드시 늘리고, 청년 월세도 특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 예산 증액, 전세 사기 피해자 선

(先)구제, 장병 급식 단가 인상 등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이 서민의 삶에 실질적 보탬이 될 예산 심사를 막고 있다"며 "정부가, 또 여당이 열심히 예산 심사에 나서고 야당이 반대하거나 심사 지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심사를 사실상 회피하고 발목 잡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잘 의아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

련, "대통령은 민심에 귀 기울여 신속히 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국민 다수가 노란봉투법 개정에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며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보다 중립적으로 하자는 방송 관련 법안들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일까지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재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학자금 대출이자 중위소득 100%까지 면제

특별법 교육위 통과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법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상환을 면제해주는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등록금 대출 구간과 근로장학금 지원 구간을 현행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에 대해 재학기간 및 휴학기간과 의무상환 개시 전(前) 기간에 발생한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민주, 청년·여성 전략지역 우선 공천

총선거획단 제안 방침...2030 선관위 기탁금 면제·젠더 감수성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청년·여성 전략지역 우선 공천 및 경선 우대 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29일 국회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역 불출마 지역구를 포함한 전략 지역에 청년·여성을 우선 공천하도록 제안키로 했다"며 "당헌에 따른 지역구 여성 30% 공천 의무를 준수하도록 제안키로 했

다"고 말했다.

또 "공천심사 및 경선 시 청년·여성 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청년 후보자 출마 지역은 경선 원칙으로, 청년·여성 후보자와 정치신인 후보자가 경선 시 정치신인 이산점을 20% 아닌 10%로 제안키로 했다"고 전했다.

또 2030 세대에는 공천심사등록비·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등을 면제하고 청년·여성 선거지원단

을 운영하며 후보자 공천 심사 시 젠더 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제안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중진 대상 혐의 출마·용퇴 제안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고 쟁점이 되는 것들은 다 논의할 것"이라며 "여러 주장이 있어서 기획단에서 논의하다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총선거획단은 이날 결정한 내용을 향후 당 최고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건의한 후보자 경력에 당 대표 이름 사용 불허 및 현역 의원 평가 하위 감산 비율 상향 등은 최고위에서 의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개발부지 매매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역 시흥대로변

매매금액 : 280억

대지면적 : 1,379㎡(417평)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서울과 경기 서남부권을 잇는 시흥대로 광대로변에 위치한 자산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신안산선 개통 예정으로 더블역세권 위치
- 매도자 명도조건이며, 제소전화해 완료
- 추천용도 : 오피스텔 및 근생 개발, 자동차전시장 및 판매장

대표 번호 02-554-9685 (주)알스퀘어에셋부동산중개 | 대표 영 정 오
010-4484-8110 11680-2019-00486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1 3층 (역삼동, 아남타워)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